수학전문가 소통하고 공유하다

경남도교육청, '교육감·학부모와 함께하는 수학Talk콘서트' 열어

수학교육 대중화를 위한 '교육감·학부모와 함께하는 수학Talk콘서트'가 23일 오전 10시, 진주교육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남수학교육방법개선과 과정중심 수시평가'를 주제로 한 이날 콘서트는 진주지역 초·중학생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와 자녀의 평소 수학공부방법과 진로에 관한 고민에 대해 교육감, 수학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양산수학체험센터가 주관한 이번 콘서트는 경남 각 지역의 학부모와 경남교육주체들이 경남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동환교수(부산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는 '수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자녀의 수학공부 방법에 대한 조언'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의 수학성적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과 비례한다"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정인수 교사(양산수학체험센터)는 지난 8월, 교육부가 주관하는 수학문화관 조성사업에 경남교육청이 선정된 것과 수학문화관이 경남수학교육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현재 수학교육의 흐름과 체험수학의 중요성을 알았으며, 수학문화관이 빨리 설립돼 아이가 다양한 체험수학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박종훈 교육감은 '과정중심 수시평가'로의 전환이 '탐구과정 중심의 수학수업으로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수학수업 사례를 들며 학부모에게 직접 시연하면서 강연했다. 학부모들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과정중심 수시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시간이었다. 경남의 모든 초·중·고 수업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종훈 교육감은 수학문화관 조성사업이 서부경남 교육의 메카인 진주의 수학교육방법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경남교육청이 한국의 수학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2017년 창원에 경남수학문화관, 김해에 김해수학체험센터를, 2018년 진주에 진주수학체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국제적 안목 배양하자

경남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젝트' 해외인턴십 발대식

경남지역 특성화고 학생 40명이 9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주 동안 호주로 해외인턴십을 떠났다. 이들 학생들은 호주 국립기술대학(SI TAFE)과 전공별 10개 업체(Sushi Bar 등)에서 현장실습 등 다양한 해외체험을 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실무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동시에 갖춘 신기술을 체험하고 기능인으로서의 국제적 안목을 배양하게 된다.

특히, 호주 인턴십은 세계적인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호주 현지 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특성화고 해외인턴십을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 중순까지 특성화고 3학년 74명을 대상으로 화상영어교육 및 영어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7월 16일, 23일 이틀간 서부권, 동부권으로 나눠 ESPT영어 시험, 7월 23일 심층면접, 출석률을 통해 40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해외인턴십 파견을 하게 됐다.

또한, 호주 현지 타일협회, 요식업협회와 취업 약정형 MOU를 체결해 11명의 학생이 11월 14일부터 2주 동안 현장 적응교육을 이수한 후 협회에서 제공하는 기업체에 취업할 예정이다. 이들은 출발에 앞서 지난 8월 12일 학생, 학부모, 학교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해외인턴십 운영 및 유의사항과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경남도교육청 과학직업과 유창영 과장은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직업교육의 동기를 부여하고 현지 교육기관과 취업훈련기관과의 연계교육을 통해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기능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및 취업률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내다보았다.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 최선

마산제일여중, 1학년 일일과학체험교실 참여

경남 창원 마산제일여자중학교(교장 심희자)는 지난 22일 경남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일일과학체험교실'에 1학년이 참가했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평소 학교수업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과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과학시연, 천체 별자리 탐험, 과학실험·공작, 과학전시관 관람 등의 다양한 체험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학생들은 먼저 대강당에서 '무인항공기 비행원리' 등 다양한 과학 시연활동을 보고, 천체투영관에 들러 계절별 밤하늘에 나타나는 별자리의 모습 및 달과 지구의 관계에 대해 살펴봤으며 과학실험·공작수업을 통해 '빨대 로봇손 만들기'와 '진동로봇 만들기'도 실습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395호인 화석문화재를 관람하며 다양한 공룡발자국 화석과 여러 가지 동물들의 흔적 화석 등 화석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과학전시관에서 푸코의 진자, 지진 관측, 베르누이의 원리, 관타지 터널, 자전거 외줄타기 등도 체험했다.

일일과학체험교실을 마친 후 1학년 신민경 학생은 "특히 빨대 로봇손 만들기 실습이 기억에 남는다. 편지로 좋은 곳이 우리 몸의 관절이 되고, 빨대에 넣은 실이 힘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실제 우리 손의 움직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진짜 로봇손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희자 교장은 "이번 체험활동이 우리 학생들에게 과학적 사고력 및 탐구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기관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진로탐색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호기 기자 khk@

창녕교육지원청

정부3.0 및 민원 친절 교육 실시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곽권태)은 26일 오후 1시부터 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관내 단설유·초·중학교 및 소속기관 행정실장과 정보공개·민원업무 담당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3.0 및 민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정부3.0 가치에 입각한 업무혁신 의지를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강사로는 서비스코리아 구효정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서비스! 이것만 합시다!'라는 주제로 효과적인 민원처리요령과 민원서비스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였다.

통영영재교육원, 봉사활동 실시

통영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원장 김상권)은 9월 24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2016. 통영사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통영 내 문화유적지인 청마문학관, 이순신 공원, 원문공원 충혼탑, 해병대 통영상륙작전 기념관, 수륙터 일대에서 실시했으며, 학생들이 직접 봉사활동의 계획과 실행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참된 봉사활동의 의미를 인식시키는 기회가 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감문에서 "무심코 지나다니기만 했던 지역의 여러 장소에서 직접 쓰레기를 줍고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면서 관광도시인 통영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진 실제 대피훈련 주기적 실시

경남도교육청, 지진 피해 복구 및 대비 특별대책 발표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16년 9월 22일 16시 경주지진 발생에 따른 '지진피해 복구 및 향후 지진 대비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지진피해 학교 및 기관에 대한 피해상황 신속 조사 및 복구비 긴급 투입 ▲학교 내진 보강 경비 100억 추경 편성 예정, 2017년도 대폭 증액 편성 ▲학교 시설안전 구축을 위한 대학교수 및 시설전문가 참여 위원회 구성 ▲안전 매뉴얼 대폭 보강 ▲실제 상황 대피 훈련 주기적 실시 ▲학교시설 지역주민 대피시설 및 이재민 시설 제공 등이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안전책임자 회의를 개최해 시달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드높이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제 상황 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이훈 행정국장은 "이제 경남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그동안 지진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을 교육자료 등을 통한 설명에 치중되어 왔으나 금번 지진을 계기로 실제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여건이 다소 어렵더라도 내진보강을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해소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양산단층과 가까운 지역부터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